

‘영산강은 살아있다’...2천년 역사와 전통 만나는 나주축제

20~29일 영산강 둔치공원

나주의 유구한 2000년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축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20일 개막한다.

나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영산강 둔치공원 일원에서 ‘2023 나주축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축제는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보낸 10일’을 내걸고 2000년 역사문화도시인 나주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나주축제는 10대 핵심 행사를 이 기간 선보인다.

20일 오후 5시 여는 전야제에서는 K-팝 주역들의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TV 총경연 예능인 ‘스트릿 맨 파이터’, ‘스트릿 걸스 파이터’ 출연자 등 모두 20개 팀이 4시간 동안 화려한 군무를 선보인다.

이튿날 오후 5시부터는 축제의 공식적인 개막식이 진행된다.

54척의 조운선이 영산포를 누비고, 밤에는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라도에서 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으로 세곡을 실어 나른 조운선 행렬을 재현한다.

고려~조선 때 한양으로 세곡 나르던 조운선 행렬 재현

뮤지컬·마한소도제·불꽃쇼·천연 염색 패션쇼·고려향가

‘나주 광흥창’에 소속된 조운선은 53~54척으로 1년에 세 번, 3만석 이상의 세곡과 특산물을 실어 날랐다. 영산포는 물류의 중심지였고 영산강은 살아있는 강이자 바다로서 나주의 번영을 이끌었다.

선상 행렬과 불꽃축제 이후에는 뮤지컬 ‘강간과 장화왕후’가 무대에 오른다.

창작 뮤지컬인 이 작품에서는 나주에서 전해지는 왕건과 버들 남자에 얽힌 고려 건국 설화를 담았다. 안주는 연출가와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여자대상을 받은 김은경 배우, 오페라 가수 이동명씨 등이 참여한다.

22일 오후 6시부터는 ‘마한소도제’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날 7시에는 개막식에서 선보였던 선상 행렬과 불꽃축제를 30분간 다시 진행한다.

이후 축제 주 무대에서는 ‘영산강 아리랑 미디어 아트 공연’을 2부에 걸쳐 선보인다.

1부는 송지나 작곡가와 주홍 샌드아트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영산강 아리랑’으로 막을 연다.

정준장 명창은 영산강 생명을 위한 위로와 해원

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신도원 작가가 임진왜란 의병장 김천 일을 다룬 미디어 융복합 공연을 펼친다.

김천일(1537~1593) 선생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나주 금성관에서 최초 근왕의병을 일으켜 북상 진군해 수많은 전공을 세운 나주 출신 의병장이다.

23일 오후 7시에는 나주가 본고장인 ‘천연 염색’을 주제로 한 패션쇼가 열린다.

MZ 세대로 즐겨 입을 수 있는 작품 등 모두 80여 벌이 무대를 누빈다.

24일 오후 7시에는 국악인 김산옥과 창작 국악단 도드리가 고려향가를 다룬 무대가 펼쳐진다.

‘가시리’ ‘쌍화점’ ‘청산별곡’ ‘서경별곡’에 입힌 선율이 영산강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남정숙 축제 총감독은 “축제 기간 10일 동안 예술의 전당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 높은 예술공연,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오는 20~29일 열흘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면서 불꽃쇼 등 화려한 행사들을 펼친다. <나주시 제공>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화재 예방 훈련

장흥군은 11일 편백숲 우드랜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을 했다. <사진>

소방훈련은 장흥소방서와 함께 진행했다.

두 기관은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에 있는 목재산업지원센터 1층 카페에서 누전 화재가 발생

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연막탄 불을 붙여 화재 상황을 만들고, 최초 발견자의 119신고, 소화기·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압훈련을 받았다.

훈련 참가자들은 대피와 화재 현장 복구 작업 등을 수행했다. 또 인명 피해 발생과 단전, 통신 두절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속해서 화재 예방 훈련을 진행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관리·점검하는 등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편백숲을 보호하고 우드랜드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평군,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예비사업자에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법인...5억5천만원 확보

함평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법인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예비사업자에 선정됐다. 1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법인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도비 등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농산물의 친환경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비중으로 분담한다.

품목별로 벼 20ha, 벼 이외 품목은 5ha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 단체라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법인은 친환경 쌀을 도정해 학교급식과 대형 병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법인은 앞으로 도정 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법인이 있는 신광면 신여마을은 최근 전남도 ‘2023년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공모를 위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조사 등 평가 준비에 점검과 보완 검토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 오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서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24일 공설운동장

화순군은 오는 24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10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전남 숲의 다양한 문화·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중요성을 홍보하고, 선진 산림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남지역 임업인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화순군과 한국임업후계자 화순군협회 공동으로 주관하며, 산림경영인과 임업 후계자, 독립가, 산림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곳에서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숲 만들기’에 앞장서는 임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

고 화합한다.

임산물 유공자 표창과 임산물 품평회,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체육행사, 전시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또 이달 27~30일 나흘간에는 중국과 대만, 일본, 폴란드, 핀란드 등 국내외 산림자유 전문가 100여 명과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세계산림치유대회’가 화순에서 열린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임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보 교류와 임업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한마음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숲의 보고 전남이 산림업의 부흥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군 관광 사진·UCC 공모

11월 10일까지 국민 누구나

담양군이 오는 11월10일까지 ‘2023 관광 사진·UCC 공모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담양의 아름다운 담은 사진과 영상을 내면 된다. 담양 자연 경관과 관광 명소, 축제 등이 주제이면 된다.

사진·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1점)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